

□ 세계 인권선언일에 돌아보는 '인권의 역사와 질곡'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박 홍 규

(영남대 법대 교수)

인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인류사는 인권을 추구한 질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역사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지배자 중심이다. 진실한 민중의 역사가 쓰여진다면 그것은 피와 눈물로 쓰여지는 치열한 인권투쟁의 역사일 것이다.

인권이 법으로 보장된 것은 18세기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이후에 와서였다. 곧 프랑스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시민혁명 등의 결과였다. 그 후에도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인권이 보장되고 의회, 삼권분립, 법의 지배 등을 골자로 하는 근대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 전에는 전체적 군주정치가 지배했다. 그 시대에 인권은 군주라고 하여도 뱃을 수 없는 천부의 것, 자연의 것으로 주장

요한 것이 계몽시대의 자연법 사상이었다. 그러한 인권사상과 인권법의 기본은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위정자의 압정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것으로서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곧 인권의 탄압은 여전히 국가권력에 의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곧 생명과 신체 및 재산, 그리

다까지나 백인, 중산층, 남성의 신분적 해방과 재산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권이 있었다. 따라서 비백인, 노동자, 여성 등은 인권의 주체가 아니었다. 예컨대 1788년의 미국헌법에서 백인이 1표였다면 인디언은 0표, 흑인은 5분의3표였다.

또한 노동자와 여성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20세기

국제문제로 여겨진 제2차대전이었다. 독일의 유대인 인권탄압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유린이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여 제2차대전 이후 조직된 국제연합은 그 앞의 국제연맹과 달리 현장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했다. 그러나 식민지 억압지배체제는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았고 1960년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세계인권선언을 국제법으로 확인하고 민족자결권을 기본으로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에 제정됐고 1976년에 와서야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금지협약, 아동권리조약 등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인권은 '국민의 권리'로부터 '인간의 권리', '인류의 권리'로 변모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1960년대의 40여개국, 1970년대의 30여개국에 독립하여 17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식민지는 일용 종식되었어도 경제적 사회적 계급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결과 이른바 제3세계의 여러 나라는 여전히 질곡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권을 비롯한 제3세계의 인권이 주장되어 왔다. 곧 자유권, 사회권에 이르는 발전권의 대두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인류가 실질적인 평등과 복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또 하나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권을 비롯한 새로운 인권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중의 역사는 치열한 인권투쟁사

되었다. 그러한 사상으로서의 인권이 시민혁명을 낳아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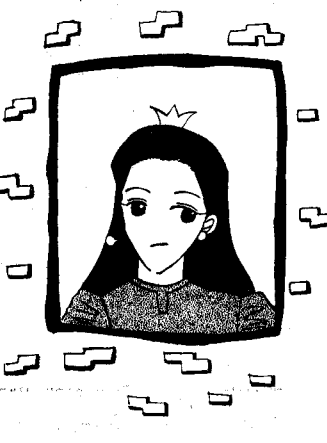
요한 것이 계몽시대의 자연법 사상이었다. 그러한 인권사상과 인권법의 기본은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위정자의 압정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것으로서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곧 인권의 탄압은 여전히 국가권력에 의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곧 생명과 신체 및 재산, 그리

세시봉

이택근 문화부 기자

공주병, 개인주의 사회의 산물

'경상남도에서 가니까 경상북도에서 서운해하고, 강원도민을 만나니까 서울 시민이 서운해하고, 난 얼굴이 너무 예뻐서 탈이야,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말을 하는 배우는 이제 나이 45살의 소녀(?) 김자옥씨이다. 그녀는 현재 MTV '오늘은 좋은날'의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코너에서 여고생으로 변신해 연기를 하고 있다.



배우 김자옥을 다시 브라운관의 스타로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맡은 역은 요즘 유행인 '공주병'을 앓고 있는 여고생이다. 현재 코미디인기순위 상위권에 오른 이 프로의 인기요인은 그동안 순애보의 연기로 시청자들을 심금에 젖게 했던 김자옥이라는 배우의 이미지파괴와 함께 세간에 얘기되던 공주(왕자)병을 방송에서 소재화했다는 점에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주병환자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적 인격(나르시시틱 퍼스널리티)'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과 달리 자신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다는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해가죽화가 진행되면서 한 두명의 자녀만을 두는 가정의 수가 많아 부모들은 모든 관심과 애정을 자신의 자녀에게 쏟아 붓게 되었다. 그들의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가장 예

쁘고 착하며 똑똑한 것처럼 생각한다.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친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공주와 왕자임을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뜻을 지닌 미나공(미안해 나 공주야), 미자공(미친X 자가 공주인지 알아) 등 갖가지 말들이 방송사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공주(왕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주위의 사랑과 기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좌절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을 갖게 된다. 비단 이러한 문제점을 접어두고라도 공주병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외로이상의 주의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동네 숨은 유적지

흥릉, 청량사, 민비의 능터, 영취원, 송인원

회릉에서 유래된 회기동, 청량사에서 유래된 청량리



▲'청량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청량사

신 용 철

(중앙 박물관장 · 사학과 교수)

현재 경희여중고 남쪽에는 의종의 원찰인 연화사가 있는데, 지금 대웅전을 수축중이다. 그 옆의 회기동 산 5번지인 경희의료원 자리에는 조선조 성종의 왕비이며 연산군의 친어머니였던 폐비 윤씨의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폐비 윤씨는 궁중의 복잡한 암투와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의 갈등 및 자신의 부덕한 처신으로 사약을 받은 후 이곳에 안장되었다. 처음에 '윤씨의 묘'라 부르다가 연산군이 즉위한 후 '회릉(懷陵)'으로 높였다가 연산군이 왕위에서 밀려난 후 다시 '회묘'로 부르게 되었고 이 명칭이 몇차례 바뀌어 오늘날의 회기동의 동명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고향산의 오른쪽 산줄기를 따라 가면 오늘날 수목이 아름다운 산속에 1895년 8월20일 을미사변으로 경복궁에서 일본 부랑배들에게 무참히 시해된

명성황후 민비의 능이 있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흥릉이란 지명이 유래한 것이다. 고종의 왕후인 비운의 명성황후는 1897년 이곳에 안장되었다가 고종이 사거한 1919년 오늘날의 남양주시 금곡읍의 '흥릉'으로 옮겨져 고종과 합장되었다.

오늘날 그 자리에는 소박하게 세워진 작은 돌에 '흥릉터'란 글씨만 보이고 그 돌에 흰 줄을 둘러놓았을 뿐이다. 능의 오른쪽 끝에는 우물(御井)자리가 있어 이것이 흥릉터의 모습 전부인데, 위치가 제대로 고증이 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능의 위치로 표시된 정면에는 1922년 총독부가 건립한 '임업연구원' 자리에 몇년전 새로운 임업연구원이 세워지고 그 앞에는 산림청 건물도 자리잡고 있다. 명성황후의 흥릉이 옮겨간지 3년뒤인 1922년에 하발면 흥릉 자리의 정면에 임업연구원을 짓게 되었는데 의문스럽다. 이 흥릉터의 위치가 정확하다면 민비 시해의 잔악한 만행에 대한 조선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회식, 또는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당시에는 흥릉에서 연결된 산이었으나 지금은 동대문구청이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거론하는 은행나무 우거진 4차선 대로인 건너편 언덕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의 '수표(水標, 보물 838호)'와 창경궁에 있던 '해시계(보물 839, 840, 841호)' 등의 문화유물과 세종의 신도비가 옮겨져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그 남쪽 기슭에 있는 사적 361호와 영취원(永徽園)과 송인원(崇仁園)은 고종의 후궁이었던 순헌귀비 엄(嚴)씨의 묘와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어린 아들 진(晉)의 묘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오늘날의 수목원 일대의 숲이나 세종기념관 및 영취원과 송인원 지대를 합쳐서 모두 흥릉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 언덕에서 삼육 초등학교를 넘어 청량리 방향의 남쪽 언덕에는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서깊은 사찰인 청량사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나무 몇그루 없이 온통 재건축하는 고층아파트와 언덕의 주택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무량수전, 극락보전, 칠성각 및 발원문과 승덕사 등의 석물과 20여명의 비구니들로 보아 옛날 이 절의 규모를 알만하다. 오늘날 청량리라는 지명도 이 절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고향산에서 우측 서남쪽으로 뻗어내려간 천장산에는 흥릉을 비롯해서 영취원, 송인원 등과 구릉지대의 남쪽에는 오래된 사찰인 청량사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옛부터 북 또는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인터뷰 □ 태평양 언어 정보 계산 학술회 개최위원장 박병수 교수

이론 언어학과 전산 언어학을 접목시키는 계기



서울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원장 박병수교수, 영문학과)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언어정보학회 후원으로 제11차

아시아-태평양 언어 정보 계산 학술회(The 11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11)를 우리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의 이 학술회 개최위원장인 박병수원장을 만나보았다.

이 학술회를 소개한다면 =이 회의는 이론 언어학과 전산 언어학자들의 공동 토론의 장으로 지난 81년 창설됐다. 창설 당시 한-일간의 교차로 개최했으나 92년부터 대만 흥

=작년 홍콩국립대에서 열린 제10차대회에서는 총34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나 올해는 90여편이 논문발표 신청이 들어와 이중에서 57편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13편, 대만, 홍콩 등 중국지역에서 11편, 북미주와 유럽에서 11편, 우리나라에서 11편이 발표되며 약 8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주목할 것도 조직위원회가 세계의 저명한 언어학자 카알 폴라드바시(미국 하와이주립대 언어학과)를 특별 초청 '계약 기반의 문법 이론: 21세

기 언어학의 새로운 전개'라는 주제로 21세기 언어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학술회의 개최 배경과 의의는 =현재 한국어 정보화확장을 꾀하고 있고 올해가 우리나라 주최 순서여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우선 가장 큰 의의는 이론 언어학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전산 언어학의 조화를 들 수 있다. 현재 번역소프트웨어개발 등 상당한 진척이 있는 분야도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문화적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영준 기자>

생활의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천하를 얻고도
한진의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던 나폴레옹

새벽 5시,
커피한잔으로 잠을 깨고
황제의 자리로 가는 나폴레옹.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어느 아침, 나폴레옹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유럽대륙의 반을 발아래에 둔
대제국의 황제로서 아침,
아니 새벽부터 해야 할 일이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던 나폴레옹.
만인이 우러러 보는 황제의 자리 -
권력이 주는 달콤함 만큼
책임져야 할 많은 업무와 고민.
나폴레옹은 그래서, 새벽에 부스스한 정신을
커피한잔으로 맑게 추스렀습니다.
커피한잔으로 시작하는 황제의 하루.
그때, 최고의 자리에도 커피가 있었습니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공연히 우울해지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힘찬 결의를 다지는 시간.
커피한잔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을 부드러운 향으로 물들이는 커피한잔.
메마른 삶에 향기로움은 느낌하나로
다가오는 좋은 친구

동서식품